

- 주요 뉴스: 미국 1월 소비자물가 발표 예정, 디스인플레이션 기대 약화 가능성 등에 주목
 - ECB 슈나벨 위원, 금리인하는 근원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완화 신호 이후 가능
 - 중국 1월 은행 신규대출, 사상 최고 수준. 기업활동 촉진 등이 목적
 - 러시아, 3월부터 일일 원유생산 50만배럴 축소. 서방국가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통화긴축 완화 기대 감소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1%], 달러화 강세[+0.7%], 금리 상승[+21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고금리 장기화 전망 및 일부 기업실적 부진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 지수는 글로벌 통화긴축 우려 등으로 0.6%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1월 소비자물가 발표 앞두고 경계감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1%, 0.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 등이 영향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7bp 상승
- ※ 원/달러 환율(주간) 2.8% 상승, 한국 CDS 상승

		2/10일	2/3일	전주말대비			2/10일	2/3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4,090.5	4,136.5	-1.11%	국채 금리 10y	미국	3.73%	3.52%	21bp
	유럽	457.89	460.77	-0.63%		독일	2.36%	2.19%	17bp
	중국	3,260.7	3,263.4	-0.08%		영국	3.40%	3.06%	34bp
	일본	27,671	27,509	0.59%	CDS 5y	한국	42bp	40bp	2bp
	한국	2,469.7	2,480.4	-0.43%		중국	61bp	51bp	10bp
환율	달러지수	103.63	102.92	0.69%	위험 지표	EMBI+	384	357	27bp
	유로화	1.0678	1.0795	-1.08%		VIX	20.53	18.33	12.00%
	엔화	131.36	131.19	-0.13%		WTI유	79.72	73.39	8.63%
	위안화	6.8145	6.7980	-0.24%	원자재	구리	401.7	405.7	-0.99%
	원화	1,265.2	1,229.4	-2.83%		금	1,865.6	1,865.0	0.0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월 소비자물가 발표 예정, 디스인플레이션 기대 약화 가능성 등에 주목

- 2/14일 1월 소비자물가(CPI)가 발표될 예정. 1월 CPI의 연간 상승률은 전월 대비 하락(6.5%→6.2%)할 것으로 예상. 반면 월간 상승률은 휘발유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높은 수준(0.1%→0.5%)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
- 만일 1월 월간 상승률이 예상대로 전월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 이는 연준의 물가 관련 시각에 부합된다는 의미. 이에 시장에서는 향후 금리인상이 지속되고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의견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최근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높아지던 디스인플레이션 기대도 약화될 소지.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업 제품 가격의 하락세 둔화 및 높은 수준의 서비스 물가 상승률 등으로 연준의 최종금리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다는 시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Bloomberg의 Anna Wong)
- 한편 근원 CPI의 연간 상승률은 전월비 낮은 수준(5.7%→5.5%)을 기록하고 월간 상승률은 전월비 보합(0.4%→0.4%)을 나타낼 전망. 연간 상승률이 5.5%를 나타낸다면 이는 '21년 말 이후 최저 수준이며, '22년 10월부터 3개월 연속 근원 CPI 상승률이 하락한다는 의미
- 이 외에 2/15일 1월 소매판매가 발표. 시장에서는 전월비 증가율이 작년 12월에 비해 상승(-1.1%→-0.9%)하여 소비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신호를 발신할 것으로 관측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월러 이사, 암호화폐는 투기적 자산에 불과

-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향후 자금세탁법 위반 등 심각한 위험에 연루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암호화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격이 '0'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한편 연준은 대형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심사) 계획을 공개. 이에 따르면, 상업부동산 및 주택시장 위기를 동반하는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은행들이 해당 여건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측정. 특히 위기 수준에 따라 은행의 자본, 이익, 손실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산할 방침

■ ECB 슈나벨 위원, 금리인하는 근원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완화 신호 이후 가능

- 금리는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이르러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발언. 근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이를 수 있다는 강한 근거를 확인할 때까지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부연
- 이탈리아 중앙은행 비스코 총재는 3월 ECB의 0.50%p 인상이 예상되나, 그 이후 통화정책 관련하여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언급

■ 중국 1월 은행 신규대출, 사상 최고 수준. 기업활동 촉진 등이 목적

- 1월 은행권의 신규대출은 4.9조위안으로 사상 최대였던 작년 1월(3.98조위안) 및 예상치(4.2조위안)를 상회. 이는 경제활동 증가 등이 목표. 이러한 영향으로 같은 달 M2 통화공급의 전년동월비 증가량은 12.6%로 '16년 4월 이후 최고치 기록
- 한편 2/10일 은행 간 단기 대출금리로 활용되는 익일물 레포금리는 전일비 40bp 하락한 1.86%를 기록. 최근 해당 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인민은행은 지난 3일 동안 1조위안의 유동성 공급을 단행

■ 일본은행 총재, 임금 및 물가의 상승 수준은 불충분

- 구로다 총재는 지난 10년 동안의 대규모 통화정책 완화에도 임금과 물가의 상승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 다만 경제는 비교적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역시 긍정적 상황이라고 평가. 한편 아마미야 부총재는 현 상황에서 수익률곡선제어(YCC)의 추가 조정은 필요 없다고 언급

■ 러시아, 3월부터 일일 원유생산 50만배럴 축소. 서방국가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

- 서방국가들의 자국에 대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일일 원유생산을 줄이겠다고 발표. OPEC+가 이미 일일 200만배럴 감산을 결정한 이후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향후 유가 상승 압력을 높일 우려. 2/10일 배럴당 WTI 가격은 전일 대비 상승(79.72달러, +2.13%)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2/13 현지시각 기준)

-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미국 뉴욕 연은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금융시장, 고물가 지속 가능성에 연준과의 금리 전망 간극 축소 - Financial Times

(Investors bet rates stay high for longer as Fed inflation message sinks in)

- 최근까지 투자자들은 물가하락 지속 예상에 근거하여 연말 연준의 금리인하를 기대. 그러나 1월 양호한 고용결과가 발표된 이후 시장에서는 금년 최종금리 시기(5월→7월) 및 금리인하 횟수(2회→1회) 등이 조정. 이러한 변화는 금년 인플레이션 전망 상향(2.4%→3.9%, Refinitiv) 등을 반영
- 다수의 주요 연준 인사들 역시 통화긴축의 조기 종료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 다만 일각에서는 연준의 정책경로 관련 선제적 지침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 특히 파월 의장의 경우 지난 FOMC에서 시장 예상과 달리 다소 비둘기파적 입장을 피력

■ 미국 경제, 성장 지속을 의미하는 '무착륙(No-Landing)' 가능성이 거론 - WSJ

(Hard or Soft Landing? Some Economists See Neither if Growth Accelerates)

-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의 연착륙 혹은 경착륙 논쟁이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존재. 그러나 최근 강력한 고용 및 소비지표 등으로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 지속을 의미하는 노랜딩(No-Landing) 가능성을 주장. 이에 따르면, 양호한 고용과 가계소득 증가가 이어지면서 연준은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소지
- 다만 여전히 다수의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가능성에 무게. 이들은 통화긴축 효과가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 특히 향후 저축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저조한 기업이익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

■ 중국의 경기 개선 기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으로 연결 - 블룸버그

(Foreign investors start 2023 with record \$21bn push into China stocks)

- 금년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거래소(stock connect)를 통해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 상장 주식을 매입한 금액이 1,410억위안(210억달러)에 육박. 이는 동 기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2021년과 비교하여 2배 수준
- 최근 중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 수요 급증은 춘절 연휴 이후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이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 Fitch는 중국의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4.1%→5.0%). 투자자들은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중국 주식의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다음 달 양회 개최 이후 또 다른 상승장을 기대

■ 중국의 에너지 부족, 녹색경제 전환을 지연 - Financial Times

(China coal: energy shortage ensures chemical romance ends badly)

- 앞서 중국 정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30년부터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발표. 이에 기업들은 세계 최초로 석탄을 에탄올로 전환하는 친환경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등 Coal-to-Chemical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
- 그러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위드코로나 전환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커지면서 최근 중국의 전략이 변화하기 시작. 일례로 중국 Yitai 그룹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줄어들자 최근 160억위안 규모의 Coal-to-Chemical 공장 건설을 중단. 반면 철강기업 등은 여전히 저렴한 가격에 석탄을 매입
- 중국 에너지 사용량의 80%가 화석연료인 상황에서 녹색경제 전환이 지연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 미국 국채시장, 1월 소비자물가(CPI)의 상승 확인되면 매도 확대될 가능성 - 블룸버그

(Investors Brace for Risk Inflation Dooms Bonds to Bear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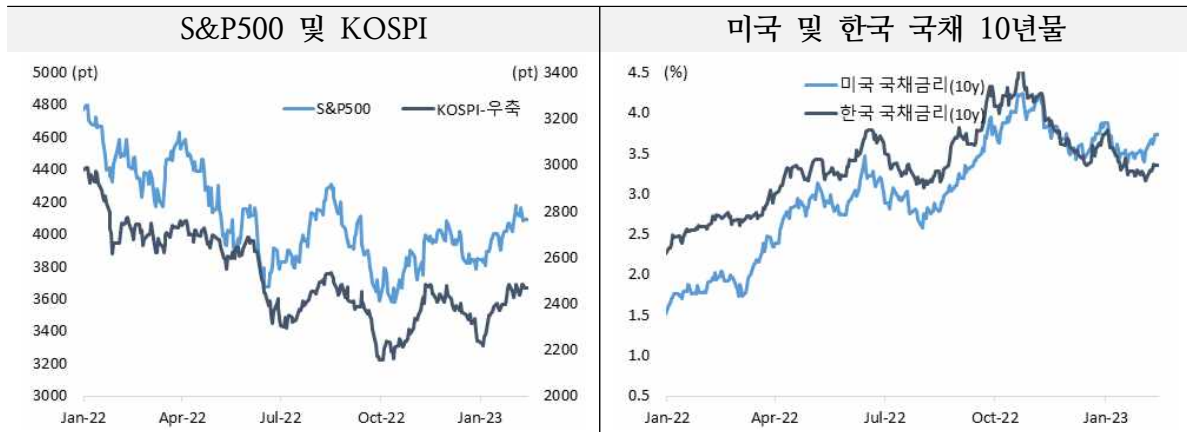
■ 세계 주요국,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러시아 퇴출을 위한 노력 필요 - Financial Times

(It is time to cut Russia out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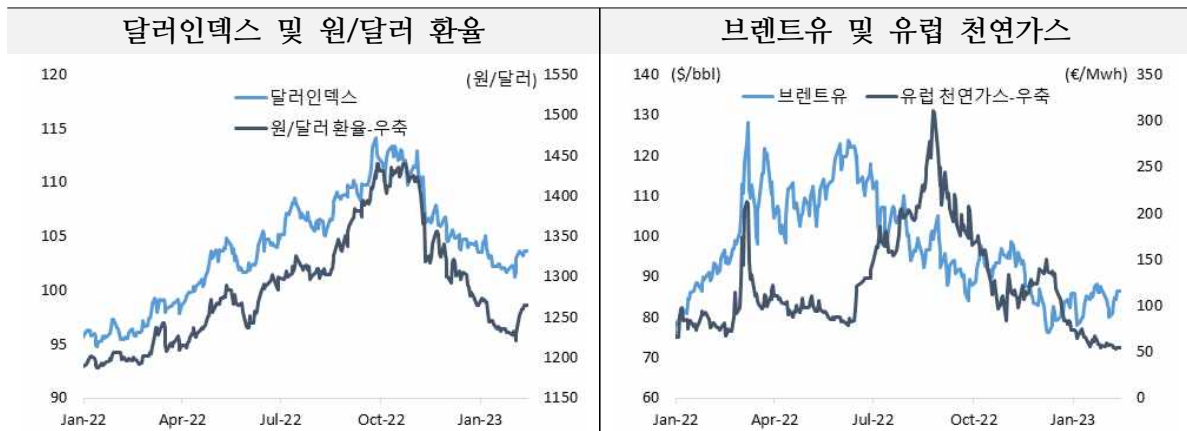
■ 미국의 자사주 매입세 인상 계획, 시행되면 비효율적 자본 배분 초래할 소지 - WSJ

(Biden's Stock Buyback Tax Would Hit the Little Gu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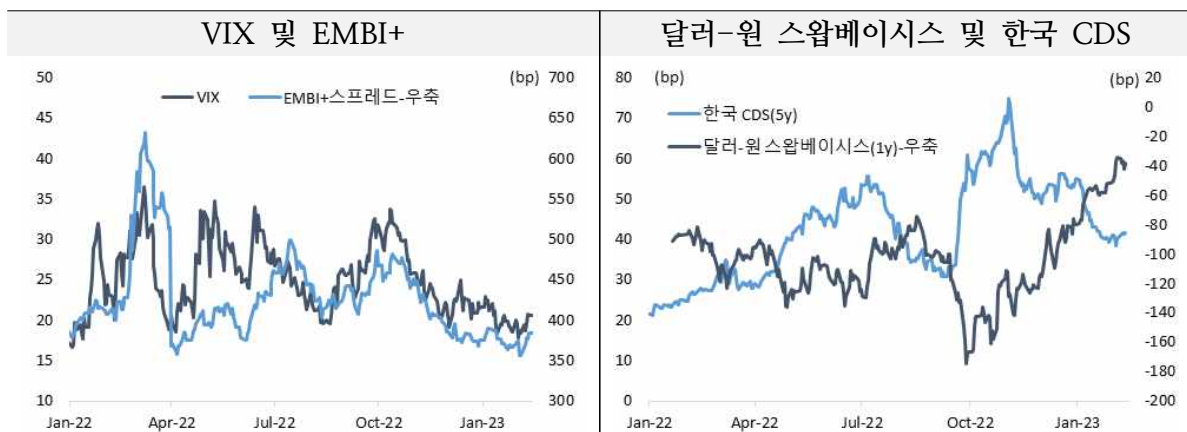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